

# 비엔날레 문화 바꿀 의미있는 실험

광주비엔날레 관객 참여 프로그램의 추진과 전망

장 석 원 · 전남대 교수

제 5회 광주비엔날레가 시도하는 관객 참여 프로그램은 비엔날레의 핵심 전시가 되는 본전시를 관객에 의해, 관객으로부터, 관객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발상이다. 이것은 그 어느 비엔날레도 시도해보지 못한 획기적인 성격으로 비친다. 2004년 9월 10일 개막되는 광주비엔날레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그로부터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가 판가름될 것이다.

## 다양한 요구 · 제안 잇따른 워크숍

지난 2004년 1월 12일부터 이틀간 광주 프라도 호텔에서 관객 참여 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에는 북남미를 비롯 중동 · 아프리카 · 아시아 · 오세아니아 · 유럽 등 41개국에서 50여 명의 관객이 참여했다. 이 관객들의 면면을 보면, ‘핵폭탄의 제조(1986년 작)’로 폴리처상을 수상한 인문사회학자 리치드 로즈(미국), 호텔 서비스 매니저 모니카 프란디(우루과이), 대안교육운동가 산토쉬 바부(인도), 전직 광산 노동자 해롤드 마나라(남아프리카공화국), 동아시아 미술사 전공 대학생 루카스 다만(스위스) 등 외국인과 더불어 광주 중앙초등학교 5학년 주하연, 시인 고은, 경남 양산 내원사 지을 스님, 나주배 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농부 권호상 등 다양한 계층과 직업의 국내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관객이라는 속성 자체가 다양하고 규정짓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에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관객의 예측불허의 양태는 그 출현 자체가 관심거리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 워크숍의 개막식 때에 가장 어린 나이의 중앙초등학교 5학

년 주하연은 “광주비엔날레는 처음이지만 잘 할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서슴없이 말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작품이 전시되면 좋겠느냐는 물음에 설치 작품이 많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어린 초등학생이 관객 대표의 한 사람으로 선정된 것도 의외였을 뿐 아니라 그 발언 또한 여느 초등 학생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었다.

첫 날 오후의 소그룹 토론Ⅰ은 권역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것은 당일 저녁의 소그룹 토론Ⅱ(자유토론)와 더불어 서로 다른 방식의 기초 토론이었으며, 예술감독과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들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예술총감독 이용우, 예술감독 케리 브라우어, 필자,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밀레나 칼리노브스카, 치카 오케케, 로베르토 핀토, 이원일 등이 참여). 필자는 유럽지역 관객 9명이 참여하는 소그룹 토론에 참여했으며, 저녁 자유토론에는 14명의 일반인이 참여하는 그룹에 참여하여 다양하고 분명한 관객의 의견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에 필자가 직접 들었던 관객의 의견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을 간추려 옮기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온 농부 로스 체링턴은 “미술이 소비적이 되면서 농경 사회와의 관련을 상실했다. 현대미술이 대중의 흥미를 잃었다. 전시기획자는 현대미술을 보통 사람들과 관련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고, 캐나다에서 온 주부 데보라 맥널은 “십여년 전에 베니스비엔날레에 갔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너무 다리가 아프고 피곤했다는 것 뿐이다. 전시장 가운데에서 내가 여기서 뭘하고 있지(What am I doing here?)하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즉

세계 미술계의 흐름이 기민하게 흘러가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지역 문화의 개별성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약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추상적 전제 하에 신자유주의적 위협과 생존 원리에 따른 반발 속에서 문화적 측면에서의 갈등과 극복, 융합을 시도하는 경향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문화적 패권주의와 함께 글로벌리즘 및 로컬리즘의 갈등 양상은 여전하다.

현대미술이 대중들에게 어렵고 흥미를 상실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제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의 대학생 루카스 다만은 자신이 “덴 플래빈 같은 형광등 빛을 사용하는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빛깔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 그 어떤 의미나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들은 공허하지만 매혹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현대미술이 난해하다거나 난해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대중이 현대미술에 감동할 수 있는 감각의 루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데, 이는대중이 현대 미술을 좋아할 수 있는 단순하고 분명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관객은 한국의 태극기에 나오는 과상이 상징하는 흙·바람·물 등을 전시 형태로 드러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으며, 또 다른 관객은 먼지를 연상시키는 폼페이 유적을 재현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렇듯 관객들의 제안은 다양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대책없이 표출되는 분출구와도 같다. 하지만 그동안 제한되고 잠재되어온 관객들의 요구는 힘있게 그리고 생경하게 미술관계자들의 귓 속을 채웠다.

이번의 비엔날레 추진 방식은 관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로부터 적절한 아이템들을 정리하고 그에 근거하여 작가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작가 선정은 큐레이터들의 몫이다. 관객 참여를 근거로 하지만 관객이 작가를 직접 뽑지는 않는다. 전시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큐레이터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발휘토록 했다. 관객은 선정된 작가의 스튜디오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한다. 즉 작가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의

작품을 말하고, 그것이 반영되기를 청하는 것이다. 물론 작가에 따라서는 이에 반발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상당 수의 작가들은 관객의 출현을 기이하고 흥미로워 할 것이다.

한편 비엔날레의 큐레이터는 관객과 작가를 잇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비엔날레 형태의 전시 기획에서 절대적 권한을 발휘하던 패턴에서 매개자 역할로 방향을 바꾼 셈이다.

### “관객과 소통하지 않으면 죽은 작품”

워크숍에서 관객과의 토론에 이어 마련된 큐레이터 회의에서도 관객들의 다양한 의견과 반응, 예측 불가능한 관객 양상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먼저 이원일은 고등학생 관객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공격을 받았다고 말해 ‘큐레이터가 관객으로부터 받는 공격은 어처구니없다’는 식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데 케리 브라우어는 내원사 지울 스님의 모습이나 의견에 특별한 감응을 나타냈다. 지울 스님은 환경운동을 하는 비구니 스님으로 필자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비엔날레에 처음 와보지만 막상 참석해보니 환경운동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지울 스님은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관통 저지를 위하여 단식을 하고 20만 도롱뇽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부산지법에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한편 필자는 공개 보고회에서 ‘관객은 미발굴의 광맥과 같으니 금맥을 찾아 새로운 미술 담론을 만들자.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관객 속에서 발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보스턴 현대미술센터 관장 밀레나

칼리노브스카, '95요하네스버그비엔날레' 큐레이터 치카 오케케, 전 『플레이아트』 편집장 로베르토 핀토 역시 제각각 관객의 양태를 분석해 보고했다.

그리고 관객의 한사람으로 참여한 시인 고은은 “평범한 관객들을 참여시킨 것은 광주비엔날레만의 색깔을 찾기에 충분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광주항쟁 정신을 비롯한 자유의 이미지와 동양만의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는 미술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사이에 러시아에서 온 군인 출신 관객은 자신의 테이블 주변에 보드카를 한 잔씩 권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객 담론을 일으키는 주역인 예술총감독 이 용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관객참여 프로그램은 비엔날레 문화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뿐 아니라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 비엔날레 문화가 바뀔 것이다. 전문가 집단에서 보면 관객이 무슨 전시를 꾸미느냐고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가 발달할수록 관객과 소통하지 않는 예술작품은 죽은 작품이 되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무시되어온 관객을 주역으로 무대에 올리는 일이야말로 광주비엔날레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 큐레이터의 역할 재인식 계기

세계 미술계의 흐름이 기민하게 흘러가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지역 문화의 개별성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약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추상적 전제 하에 신자유주의적 위협과 생존 원리에 따른 반발 속에서 문화적 측면에서의 갈등과 극복, 융합을 시도하는 경향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문화적 패권주의와 함께 글로벌리즘 및 로컬리즘의 갈등 양상은 여전하다. 이에 세계성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문화식민지적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역주의를 고집하는 나머지 고립을 자초한다면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세계화를 도모해 가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빚어지는 갈등과 모순이 새로운 융합으로 진전되어 얼마만큼 창의적 긴장과 생산성을 도출

해 내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광주비엔날레는 그 5회 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창출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비엔날레의 역사로 보아서 짧은 세월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대문화가 세계화를 시도하는 초창기 시도로서 그동안의 경험은 세계화를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하여 도전해야 하는지 각성토록 해주었다. 그동안의 과정이 시행착오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면 앞으로의 시도와 도전도 역시 시행착오적인 측면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착오와 실수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해야 하며 현대문화가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고 아시아권에서 독특한 문제 제기와 새로운 방향이 세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의 본전시가 제기하고 있는 관객참여 프로그램은 분명 관객을 전시 추진의 주체로 설정하여 기존의 비엔날레의 흐름과 다른 면모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이러한 추진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것은 분명 기존의 성향과 다른 그 무엇을 내포하고 은은하게 그것을 감지케 하는 효소로 작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진실해야 하며 확고하게 그 차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전시 결과는 결국 이 관객참여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로 결정나게 될 것이다. 만일 관객이 주체가 되는 전시 형태가 성공을 거둔다면, 현재의 큐레이터 중심 전시 체제는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마치 소그룹 토론에서 큐레이터를 향해 기탄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말하고, 미술의 현안 문제를 대중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비판하며 새로운 요구를 가해가는 '대중'이라는 광범위한 실체가 실험적이고 전문적 영역에서 예기치 못한 역할을 수행해 갈지 모른다. 그러나 그 대중적 마인드와 속성을 이해하고 감별하며 가치있는 방향으로 구축해 가는 역할은 역시 큐레이터의 몫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